

추모사

오늘 우리는 민족의 큰 스승이신 고하 송진우 선생님의 탄신 121주년을 맞이하여, 선생님의 애국충정을 되새기고 그 유지를 받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먼저 조국의 국권회복과 독립운동에 온 생애를 바치신 선생님의 영전에 삼가 경건한 마음으로 명복을 빕니다.

사상가이자 교육자로서, 또한 언론인으로서 오로지 민족을 위해 애쓰시며 나라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선생님!

선생님께서 남기신 국민계몽과 인재육성 그리고 민족혼을 일깨우는 데 헌신하신 위대한 발자취는 아직까지 면면히 이어져 우리의 앞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일찍이 선생님께서서는 “일제를 이기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상을 가져야 한다”는 사상 개혁론을 주창하시며 민족이 나아갈 바를 제시하셨으며, 민족독립운동의 동량이 될 학생들에게 신학문과 독립사상을 가르치면서 민족의 힘을 기르는데 열정을 불태우셨습니다.

3·1운동 후 일제가 문화통치를 표방하자, 동아일보 사장으로 취임한 선생님은 일제의 온갖 탄압과 회유를 물리치고, 언론의 정도를 걸으면서 조국의 독립을 도모하셨으며, 광복 후에는 자유 민주국가 건설을 위해 선진사상과 경륜을 펼치시며 부강한 조국을 일으키고자 진력하셨습니다. 이처럼, 선생님은 조국의 자주독립과 민주주의에 외길로 매진하시어 오로지 민족을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이신 고하 선생님!

선생님을 비롯한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 민족은 자존을 지킬 수 있었고 지금처럼 세계 10대 경제대국이자 강력한 국방력을 자랑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북한의 무력도발로, 대한민국의 안전은 다시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국가안보의 중요성이 절실한 때입니다.

국가의 안보가 경제력이나 군사력만으로 지켜질 수는 없습니다. 국가안보는 지위고하와 남녀노소, 여야, 빈부의 격차를 넘어선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만 지켜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선열들이 가르쳐 주신 길을 따라, 대한민국의 안위를 보장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안보의식을 재정립하고 흔들리지 않는 국가안보를 통해 더 강하고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도 앞으로 저희들이 나아갈 바를 지켜봐 주시고, 어려움을 헤쳐 나갈 지혜와 용기를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다시 한 번 고하 선생님께 한없는 존경과 추모의 마음을 바치며, 영원한 안식을 빕니다.

2011. 5. 6.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윤두섭